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5130원 확정...1조2825억 확보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주당 5,130원으로 최종 확정됨. 발행 신주는 2.5억주로 증자대금 1조 2,825억원을 확보함. 10월 28-29일 구주주 청약, 11월 2-3일 실권주 일반 공모를 거쳐 11월 19일 신주 상장으로 마무리 될 예정임. (뉴시스)

美 서안항만,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적체 다시 가중

2021년 하반기부터 서안 항만의 적체현상이 다시 악화되며 물류차질을 겪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의 LA항·롱비치항 24시간 운영체제 에도 적체현상은 10월초보다도 악화됨. 10월 19일 기준 LA·롱비치항에는 각각 36척, 31척이 접안 대기 중으로 보도됨. (코리아워킹가 제트)

Biden hopes fines on lingering cargo ships ease congestion at major U.S. ports

바이든 정부가 항구 내 수입컨테이너가 적치 9일 초과시 컨테이너당 100달러가 부과되는 방안을 발표함. 해당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작됨. (CNBC)

곧 10만CBM 이상 VLGC 등장

현재 글로벌 VLGC orderbook의 54%가 90,000CBM 및 93,000CBM 네오 파나막스 VLGC임. 현재 선박크기를 더 늘린 DF VLGC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곧 101,000CBM급 VLGC가 등장할 것으로 보도됨. 한편, 아직 이런 대형 VLGC를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은 준비되지 않음. (선박뉴스)

중국 2030년 탄소배출 정점까지 '액션플랜' 발표

COP26개최 직전 중국 국무원은 2030년 탄소배출 정점을 찍고 감축하는 액션플랜을 발표함.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교통수단의 전기·수소·LNG 등 사용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연합뉴스)

Oil benchmarks settle at highest since 2014 on short supply

화요일(26일), 글로벌 공급 부족과 미국 수요 급증으로 유가가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브렌트유는 86.40달러/배럴, WTI는 84.65달러/배럴에 마감함. (Upstream)